

# 고흥 유자, 유럽시장 200만불 달성...농가소득 '증대'

### 대형마트 등 B2C 시장 공략 성과 백향·유자차 혼합 신제품 개발 등

고흥 유자가 유럽 식재료 시장에 25번째 상차되며 수출 200만불을 누적 달성했다. 고흥 유자가 유럽 시장에 안정적으로 수출됨으로써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을 통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두원농협 유자가공사에서 고흥유자 수출 상차행사를 가졌다.

이번 유럽 수출은 '고흥군 농수산물 유럽 수출개척단'이 지난 2022년 9월 맺은 530만불 규모의 수출협약 체결 이후 25번째 올해 7번째 상차로 17톤 규모의 고흥 유자차가 유럽 수출길에 올랐다.

고흥 유자는 앞선 협약 이후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중동부 유럽을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누적 수출액은 200만불(617톤)을 넘어섰다.

이러한 성과는 대형마트 등 B2C 시장을 공략하는 일반적인 마케팅 전략이 아닌 식자재 시장을 공략하고 향과 맛이 중요한 차 시장에서 직접 고흥 유자를 경험하고 입소문을 탈 수 있는 오프라인 시음회 행사 등을 통해 현지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체코 11개 도시에 20여개 카페를 운영하는 현지 카페 체인(Crosscafe)에 고흥 유자를 공급하고 카페 체인(Crosscafe)에서는 현지인의 니즈를 반영해 고흥 유자를 활용한 신제품(백향과+유자차 등)을 개발해 유럽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카페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온라인 시장에서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결과 전년 1분기 대비 수출량이 70톤 증가했으며 지난해 대비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유럽인에게 우수한 고흥 유자의 품질을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고흥 유자가 유럽 식재료 시장 진출로 수출 200만불을 달성했다.

고흥군 제공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고흥 농수산물을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프리미엄 농수산물로 브랜딩하고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선식 두원농협 조합장은 "세계적으로 수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고흥군에서 적극적으로 유럽 시장개척에

나선 덕분에 전년 1분기 대비 2배나 중부 유럽 수출량이 늘었다"며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고흥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알릴 수 있도록 각 시장에 맞는 제품을 발굴하고 마케팅 전략을 다양화해 해외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겠다"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추진 고흥군, 아름다운 임종 지원

고흥군은 지난달 29일 도양읍 무연고 독거노인이 전·월세 주택에서 생활하다 병원 치료 중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공영장례에 이어 유품 정리사업을 추진했다고 1일 밝혔다.

'무연고 등 고독사 가구 유품 정리사업'은 연고가 없거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 수습을 거부하는 경우 지원하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군은 고인의 생전 거주지의 유류품 처리, 특수 청소·소독 등으로 고인의 삶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문 청소업체를 통한 유품 정리와 주변 이웃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했으며,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양가람 기자



### 댐 주변 지역 게이트볼 친선경기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지사장 오병동)는 지난달 30일 '10회 주암댐 주변지역 게이트볼 친선경기전' 주암댐 노인복지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게이트볼 경기는 주암댐지사가 댐주변 지역 게이트볼 동호회 어르신들을 위해 지원하는 활동으로 댐주변지역 13개팀 150여명이 참여해 주일간 친선도모 및 화합을 다지는 행사가 됐다.

참가팀들의 열띤 경쟁속에 진행된 이번 우승팀은 순천시 외서면 클럽이 차지했다. 준우승은 보성군 문덕면이, 장려상은 순천시 승주읍 팀이 차지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 찾아가는 이·미용서비스 광양시금호동지사협

광양시 금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금호동새마을부녀회와 협력해 지난달 29일 취약계층 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미용서비스 '함께 헤어(Hair)'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1일 광양시 금호동지사협에 따르면 '함께 헤어(Hair)'는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 유지를 위해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생꾸러미(샴푸, 린스, 바디워시 등)를 전달하는 금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이다.

협의체는 본 사업을 통해 외부활동이 많지 않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이·미용 서비스 제공과 함께 건강을 살피고 정서적 안정까지 지원하며 오는 12월까지 총 3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 환경정화 봉사활동 펼쳐 보성군 4-H연합회

지난달 30일 청년농업인 단체인 보성군 4-H연합회(회장 박기훈)가 보성군 봉산리 삼산마을부터 한국차문화공원까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1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보성다향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안전하고 깨끗한 축제장을 만들기 위해 보성군 4-H연합회 회원 81명이 참여해 폐비닐 및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날 행사는 4-H연합회 회원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지도력과 책임감, 갑질 예방 교육이 함께 추진됐다.

4-H회원들의 솔선수범 탄소중립 영농·생활실천 분위기 조성과 변화 도모를 위해 농업 분야 '2050 탄소중립 실천 결의'도 진행됐다.

양가람 기자



보성군 4-H 연합회가 지난달 30일 봉산리 삼산마을부터 한국차문화공원까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보성군 제공

### 북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장흥군, 일손부족 해소 추진

장흥군은 지난달 29일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준공식을 갖고 임대사업소 운영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농업기계임대사업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북부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장동면 조양리에 국비를 포함한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했다.

임대사업소 안에는 농기계 보관 창고와 정비실, 농기계 운전실습장 등을 갖추고 있다.

임대 농업기계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트랙터 등 45종 118대를 구비했다.

이로써 장흥군은 총 3개소(장흥읍, 관산읍, 장동면)의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게 됐다.

총 457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지난해 3147건의 임대실적을 기록했다.

올해부터는 임대 농업기계의 유상 배송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영농철 조기 출근제를 도입 운영하여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임대 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흥=김진환 기자

## 고흥군, 치매극복 한마음 건강걷기 챌린지

고흥군은 고흥우주항공축제 기간인 4일부터 6일까지 치매극복 한마음 건강걷기 챌린지를 모바일 걷기앱(워크온)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건강걷기 챌린지는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 실천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치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된 행사이다.

건강걷기 참여는 모바일 플랫폼인 워크온(Walk-on) 앱 가입을 통해 고흥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고흥우주항공축제 기간인 3일 동안 1만 5천 보 달성을 목표로 매일 5000보 이상 걷기와 고흥우주항공축제 현장 체험 인증사진 2가지를 모두 달성 후 고흥군 치매안심센터 밴드에 올리면 참여가 완료된다.

참여자 중 선착순 200명에게는 소정의

양가람 기자

기념품을 제공하며, 행사 기간이 끝난 후 고흥군 치매안심센터 밴드에 공지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개인이 아닌 우리가 모두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며 "이번 행사가 치매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건강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구례군, 17일부터 밀밭 축제 연다

구례군은 구례밀가공공장(구례군 광의면 구만길 5) 중소형 전문 제분 시설 준공식을 오는 16일 개최하고 이와 연계해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밀밭 축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문 제분 시설 준공식은 2023년부터 추진한 밀산업 벨리화 조성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군은 우리 밀 가공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기존 소규모 제

분 시설을 현대화·전문화된 시설로 탈바꿈했다.

밀밭 축제는 구례군이 작년에 선포한 탄소중립 흡살리기 실천의 취지를 살리고 '저탄소 식량작물 구례 밀'이라는 상징성을 널리 홍보하려는 의도로 기획됐다.

축제는 저탄소 농업 실천 농가인 광의면 온당리 유기농 금강밀 재배단지(구례

군 광의면 온당리 1399-1, 홍순영 농가)에서 열린다. 밀 사리 체험, 밀 공예 체험, 산책로 걷기, 압화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버스킹 공연과 시식 행사도 펼쳐진다.

탄소중립 흡 살리기 실천 과제로서 학생 체험용 탄소 사냥터(내 탄소 발자국 지우기)가 운영된다.

축제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우천 시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인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구례=김상현 기자